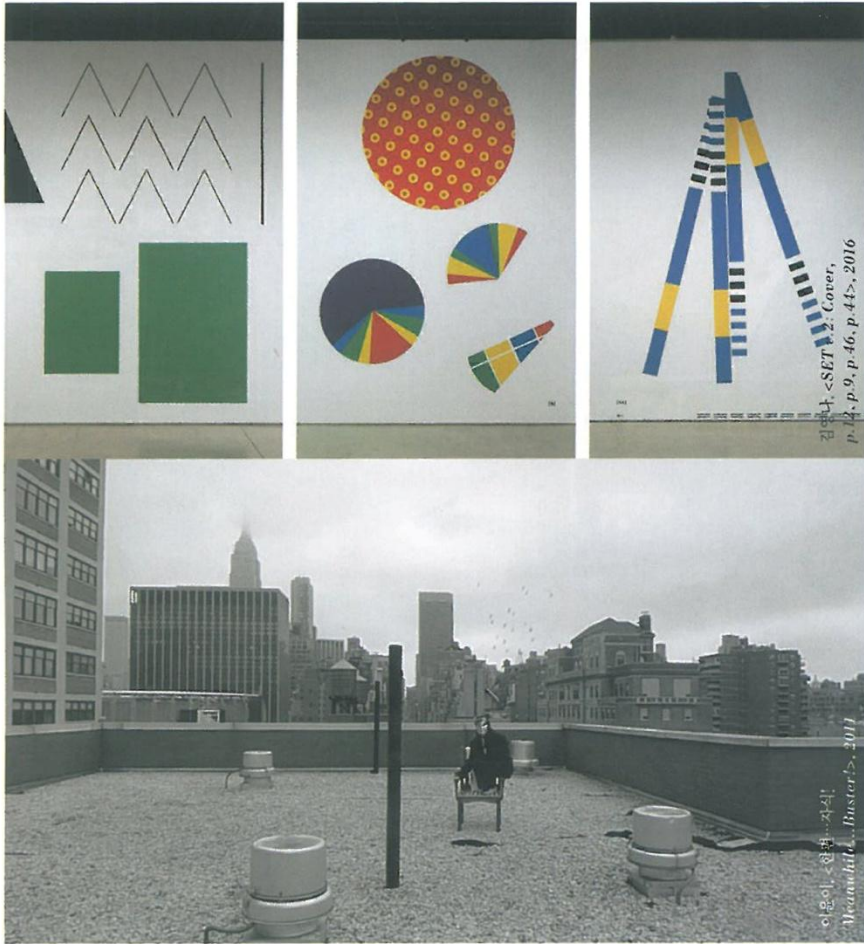


‘유명한 무명’을 생각하는 시간

July, 2016 | 김만나 에디터



‘유명한 무명’을 생각하는 시간

국제갤러리가 국내외 전속작가들의 전시만 하는 것은 아니다. 2013년 <기울어진 각운들> 개최 이후,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는 기획 전시를 마련해왔다.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유명한 무명> 전시는 김성원 외부 큐레이터의 기획으로, 7인의 작가가 참여한다. 면면을 보면, 전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김영나, 김화천, 남화연, 베리핑즈, 오민, 이윤이, 더로, 작가들은 다양한 전공에서 기인한 다양한 입장을 동일한 시공간에서 드러낸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작가에게 출현과 소멸, 등장과 은둔, 유명과 무명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 김성원 큐레이터는 말한다. “유명을 위해 과속 질주하는 우리는 ‘어떻게’ 유명하게 되며 또 ‘어떻게’ 무명으로 남는가에 대해서, 또 진정한 의미의 유명 혹은 무명이 무엇일까, 나아가서는 자신만의 유명과 무명 혹은 유명한 무명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없다.”